

고용노동부 권장어 및 저해어 5대 언어

□ 5대 권장어

① 111법칙

- 일(1)은 일(1)터에서, 일(1)찍 퇴근

② 칼퇴근이 아니라, 정시퇴근!

- 칼퇴근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될 수 있기에 “정시퇴근”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

③ 나 먼저 가니까, 다들 빨리 퇴근하세요~

④ 함께 육아

- 부모에게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키우고, 더불어 자라게 하는 육아

⑤ 일은 일터에서! 퇴근하면 회사는 안녕~

- 회사는 안녕~ 하고, 가정에 충실해요!

□ 5대 저해어

① 벌써 가게?

-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모두 지켜서!

②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다.

- 필히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일과 가정의 행복을 저해하는 말

③ 임산부 티내 지 마라~

- 임산부에게 임산부 티 난다는 말로 행복을 저해하는 말

④ 불철주말(不撤週末)

- 주말은 업무에서 벗어나 여가를 보내고 싶어요!

⑤ 회식은 이유 불문 전원 참석

- 회식자리는 직원들을 위한 자리이기에 직원들을 위한 회식 야속을 함께 정하고 만들어가는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어요